

창원시 오동동 문화광장 음주·소란 단속

시민 불편 해소 공연 활성화

김희곤 기자 hgon@idomin.com

2018년 03월 21일 수요일

창원시가 20일부터 오동동 문화광장 노숙자·주취객 단속을 한다.

지난 2016년 조성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문화광장은 각종 문화·예술 공연, 체험 이벤트 등 시민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나 노숙자 음주소란·노상방뇨 등으로 시민 불편이 잇따랐다. 창원시는 마산중부경찰서, 자율방범대 등과 협조해 대책을 강구하고 노숙자 근절을 위한 무기한 합동단속을하기로 했다. 또 마산합포구청 사회복지과는 거주지가 없는 노숙자 보호 조치를 위해 나선다.

하지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 누구나 광장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문화광장을 찾는 시민이 많아야 해결될 문제다.

손재현 창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문화광장이 사람들로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며 "봄을 맞아 여러 가지 공연 프로그램 등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핵심은 어떻게 활성화하느냐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오는 4월 중순부터 각종 공연 등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창원시는 많은 시민이 문화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월에는 야생초 전시전, 가구 만들기가 잡혀 있고, 5월 마산아구데이축제, 청소년어울림마당, 7월부터 수요음악회·토요어울림마당 등이 열릴 계획이다.

문화광장에서 문화·예술 공연, 전시, 캠페인 등 행사를 하려면 창원시에 행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행사 최소 10일 전에 창원시 통합예약포털(www.changwon.go.kr/reservation/main.do)에서 참여자 수, 행사 시간 등을 작성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151회 공연이 있었다. 상업 행위, 정치 행위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미디어글라스'도 신청을 받고 있다. 미디어글라스는 높이 4m, 길이 21m 규모로 투명 전광 유리판에 LED칩을 설치해 문자 또는 영상 표출이 가능하다. 생일 축하, 프리포즈, 격려 등 이벤트를 할 수 있다.

선착순 무료이며 오동동 문화광장 웹페이지(<https://service.g-smatt.com/promotion/odongdong/odongdong>)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문화광장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민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라며 "문화광장이 편안한 시민휴식공간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공연 활성화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http://www.idom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희곤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김희곤 기자

hgon@idomin.com

시민사회부 김희곤입니다. 마산지역 다양한 제보받습니다. 010-4037-1080

댓글 0

폰트